중심사상 쉽게 설한 '법화 7유'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③ 일곱 가지 비유

〈법화경〉에는 경전의 중심사상을 쉽게 설한 일곱 개의 비유 설법, '법화 7유'가 있다.

1. 화택유(火宅喩)는 제3 비유품에 설해진 내용으로 불난 집에 노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구해내는 이야기이다. 철없는 아이들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놀이에 빠져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의 수레가 있다고 아이들을 달래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들이 문밖으로 나왔을 때 큰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백우거(大白牛車)가 있었다. 여기서 아이들은 중생들을 말하고 아버지는 부처님이다. 양거, 녹거, 우거는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에 비유한 것이고 대백우거는 일불승에 비유한 것이다.

2. 궁자유(窮子喩)는 제4 신해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난리 통에 부모를 잃고 집을 나가 객지에서 걸식 행각을 하던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찾아와 구걸을 하다가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된다. 아들을 잃고 근심으로 살아오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붙들어 가업을 잇게 하고자 하나 아들은 거지의 습성에 길들어져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다.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아들을 불러들이고 축사 청소를 시키며 아들의 습성을 조금씩 바꾸어 가업을 물려주는 이야기다.

3. 약초유(藥草喩)는 제5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어느 땅이나 똑같이 적셔주지만 초목은 뿌리로 빗물을 빨아들여 크게 자라는 것은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것은 작게 자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은 일미평등(一味平等)하지만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빗물이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법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구경성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화성유(化城喩)는 제7 화성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지혜로운 한 도사(導師)가 대중을 이끌고 500유순이나 되는 험하고 먼 길을 가게 되었다. 대중들이 300유순쯤에 이르렀을 때 극도로 지친 대중들이 길을 포기하려 하자 도사가 신통을 부려 성을 하나 만든다. 도사는 대중들에게 성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다고 달래 대중을 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때 지쳐있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성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휴식을 즐긴다. 이때 도사는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따라오라. 보물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지금 쉬었던 큰 성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 방편으로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하여 대중을 다시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이야기이다.

5. 계주유(繫珠喩)는 제8 오백제자수기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가난하고 궁핍한 친구에게 부유한 친구가 값나가는 구슬을 옷깃 속에 넣어 주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궁핍한 친구는 부유한 친구가 구슬을 걸어주고 갔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 외지로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무가보주(無價寶珠)가 자기 옷 속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중생의 불성에 무한한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명 번뇌에 시달리고 살고 있음을 풍자한 비유이다.

6. 왕계유(王髻喩)는 제14 안락행품에 있는 이야기이다.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운 장수에게 왕이 땅이나 보물 등을 상으로 하사할 수 있으나 왕을 상징하는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화경〉의 가치를 왕의 상투 속의 구슬에 비유한 이야기다. 부처님이 권교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였지만 여래의 으뜸가는 법인 〈법화경〉을 설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설하게 된 것이 왕이 상투 속의 구슬을 내어준 것과 같다는 것이다.

7. 의사유(醫師喩)는 제16 여래수량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의사인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있던 아들들이 독약을 잘못 마셔 괴로워하였다. 의사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해독하는 양약을 주었으나 아이들이 본심을 잃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가서 아이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아버지가 죽었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자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이 충격을 받고 본심을 찾아 양약을 먹어 병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의사인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들은 중생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惡 행하지 말고 善 행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③ 계율의 종류

한 개인이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교단의 구성원인 불자가 지켜야 하는 계에는 율의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교단의 구성원은 크게 재가자(在家者)와 출가자(出家者)로 나뉘며, 이에 따라 재가계(在家戒)와 출가계(出家戒)라는 명칭이 붙여진다. 당연히 출가공동체 생활을 하는 출가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세속 생활을 하는 재가자의 생활규범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재가계는 재가자의 성별에 따라 우바새계(優婆塞戒)와 우바이계(優婆夷戒)로 나뉘는데, 이는 남성 신자인 우바새(優婆塞)와 여성 신자인 우바이(優婆夷)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출가계는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沙彌尼戒), 식차마나계(式叉摩那戒), 비구계(比丘戒), 비구니계(比丘尼戒) 등으로 세분된다. 사미계와 사미니계는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예전에는 20세 이전의 소년 · 소녀 출가자를 사미 · 사미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구족계를 받기 이전의 출가자를 가리킨다. 식차마나계는 식차마나(式叉摩那), 즉 출가는 했지만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기혼 여성 출가자가 최소한 2년 동안 지켜야 하는 계이다. 그 이유는 결혼했던 사람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임신했다면 출산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比丘)와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比丘尼)가 지켜야 하는 계이다. 특히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정식으로 완비된 것이라는 의미가 붙여져서 구족계(具足戒)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일곱 부류의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계를 칠중계(七衆戒)라고 한다.

칠중계는 불교교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일종의 종교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재가자인 우바새와 우바이는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사미와 사미니는 십계(十戒)를, 식차마나는 육법계(六法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구와 비구니는 각각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와 삼백사십팔계(三百四十八戒)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비구계와 비구니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비구와 비구니가 다른 구성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초기불교 이래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적 승가(僧伽)를 말할 때는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인 비구와 비구니만을 가리켜 왔다.

이런 의무가 불교교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것은 우선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를 지악계(止惡戒)라고 하며, 율의(律儀)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불자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멈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악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장려하는 것을 작지계(作持戒), 또는 작선계(作善戒)라고 한다. 이처럼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의 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에서 설하는 계를 성문계(聲聞戒) 또는 소승계(小乘戒)로 부르면서 비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기보다 보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행(自利行)뿐만 아니라 이타행(利他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살을 이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대승불교 경전에 설해진 대승계(大乘戒)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일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③ 스바얌바라(신랑간택시험)

특정 계층 남자 시험치고 결혼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을 그린 본격적인 전기(傳記)들은 대부분 꽤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대략 잡아 불멸 후 8~9백 년 이후에나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전기들의 내용이 모두 석가모니 당시의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같은 전기의 내용 가운데에는 꽤나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싯다르타의 결혼 장면 등이 그렇다.

전기에 다르면, 싯다르타는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결혼하게 된다. 이 특별한 결혼 시험을 스바얌바라(svayaṃvara)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도 문학 속에서 빈번하게 그려지던 결혼의 한 가지 형태였다. 실제 싯다르타가 그러한 결혼을 치렀는가 하는 의문과는 별개로 스바얌바라라는 형태의 결혼이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스바얌바라는 신부 측이 신랑을 선택하는 결혼 형태이다. 신부의 아버지가 일정한 시험문제를 내어 공표하면, 결혼을 원하는 신랑감들이 그 시험에 참가하여 서로 경합하고, 최종 승리한 사람이 신부의 꽃다발을 받고 신랑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결혼방식이 본래부터 인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인도 유럽피언 문명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대체로 무예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었는데 활쏘기나 마차경주, 검술, 또는 씨름 등과 같은 무예 종목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석가모니의 후대 전기는 수학 등과 같은 과목도 이 신랑간택시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이 시험을 통해서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감을 고르게 되고, 시험에 통과한 남자 가운데 한 명을 신부가 선택하게 된다. 본래 스바얌바라라는 말뜻은 '스스로 선택'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신부가 신랑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붓다 전기에 따르면, 공주 고빠(Gopa)는 이 스바얌바라를 통해 싯다르타를 신랑감으로 선택한다. 물론 싯다르타가 또 다른 부인인 야소다라와 결혼할 때 이 시험을 치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혼 방식이 언제 인도 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리그베다에 그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불교 이전부터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서도 이러한 결혼형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 주인공들은 싯다르타처럼 거의 대부분 왕자이며, 신부들은 신랑간택시험을 통해 이들을 신랑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형태는 후대의 고대 바라문교의 율법서인 다르마샤스트라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힌두교의 정형화된 율법서에는 일곱 가지의 결혼방식이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에 스바얌바라는 없다. 즉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결혼방식이 아닌 것이다.

스바얌바라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계층 즉 크샤트리야 계급 중에서도 왕족에게만 가능했던 결혼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신부측 아버지는 널리 신랑 후보들에게 시험을 알리고 그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 이들을 대접하고 그 신랑후보들 앞에 신부를 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랑 후보들은 예고된 기예를 펼쳐 보이거나, 또 때로는 무예로 경합을 벌여 승리자를 가리기도 했을 것이다. 신부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꽃다발을 걸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한다. 당연히 이러한 축제 형태의 신랑시험은 왕가의 재력과 권위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결혼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 방식이 다분히 동화 속에 나오는 신화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대 인도의 역사적 기록 속에도 등장한다. 인도 구자라트 주에는 2세기경의 왕이었던 루드라다만이 이 시험을 치렀던 기록이 비문에 남아있다. 루드라다만 왕은 스바얌바라를 통해 여러 공주들로부터 많은 꽃다발을 받았노라고 적고 있다. 비록 이 기록이 붓다의 시대에서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해도 붓다가 출가 이전에 스바얌바라를 통해 결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싯다르타가 왕자라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